

한국어정보처리 개인평가보고서

2014130069 국어국문학과 박찬희

1. 기여도

(1) 코퍼스 구축

조원들과 합의된 대로 의약학 코퍼스 300개와 사회과학 코퍼스 150개의 수집과 정제를 맡았습니다.

(2) 중간 보고서 및 발표

‘서론 - 본론1(코퍼스 구축부) - 본론2(코퍼스 분석부) - 결론’으로 역할을 나누었으며, 사다리 타기로 각자 분량을 정했습니다. 저는 이중에서 코퍼스 분석부를 맡았습니다. 팀원들이 각자 조사해준 분석 내용-wordlist, pajek, N-gram, wordcloud-을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였고 발표 스크립트를 짰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는 python을 이용하여 계열별 wordcloud를 구성하였고, R로 코퍼스 최종 정제 코드를 적용시켰으며, wordlist 일부-의약학, 사회과학 부분-를 구축하고, pajek 구조도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보통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모임이나 회의 시간을 제안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중간발표까지는 조원들 간에 합의가 잘 이루어진 편이었고, 역할 분담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3) 최종 보고서 준비

발표 이후 조원들 간 소통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사실상 이후 최종보고서 제출 열흘 가량을 남겨둔 시점까지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던 제목, 서·결론 분석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험기간에 접어들었고, 다들 각자의 사정 탓에 보고서 작성에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인데, 교수님께서 최대한 역할 분담을 민주적으로 하기 위해 조장을 지정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일정을 제시하거나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조원들 사이에 어떠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구 방향성을 제시해도 다들 더 이상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톡방은 늘 조용했고, 제목과 서·결론을 분석하자고 했을 때에도 분명한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무작정 분량을 사등분하여 분석을 시작하였고, 결국엔 어떠한 통일성도 없이 완결된 연구 내용을 누군가는 합쳐야 했습니다.

중간보고서의 내용을 골조로 하여 제목과 서·결론 분석 부분을 추가한 것이 최종 보고서의 형태였습니다. 이를 위해 각자가 중간 보고서에서 맡았던 내용을 보충하고, 제목 및 서·결론 분석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다들 자기가 맡은 부분만 작성하고 제출한 뒤엔 어떠한 피드백도, 이를 합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각 부분들만 잔뜩 흩어진 상태로 제출 기한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조원들은 시험 기간과 개인 사정을 근거로 만나서 회의 하자는 제 제안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들 누군가 총대를 메고 결단을 내리기만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 제가 보고서를 합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때가 제출 직전 주말이었습니다. 이후 계열 분석 내용을 정리하고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한 제목 및 서·결론 분석 내용을 합치는 순서가 왔을 때도 조원들은 이를 사다리 타기로 무작정 나눌 생각부터 하였고, 저는 제목 분석부분을 또다시 추가로 맡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본론 코퍼스 분석 부분과, 각자 수정한 보고서 내용을 하나의 글로 연결하는 역할과, 제목 분석 내용을 합쳐 하나의 일관된 의의를 도출하는 과정까지를 거의 일주일도 안 되는 기한 내에 처리해야 했습니다. 역할 분담이 민주적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중간보고서 발표 이전과 달리 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누군가가 과도하게 많은 책임을 져야만 하는 구도로 흘러갔습니다. 발표 이후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더 많은 내용을 추가하고 다듬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이 아쉽습니다.

2. 조원 평가

(1) 이다은 학우님 (4/5점)

이다은 학우님은 자기가 맡은 부분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맡아서 제출해주셨습니다. 특히 wordlist 결과를 바탕으로 한 문/이과 분석 부분을 맡아주셨는데, 이 분석 내용이 본문 내용을 보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카톡방 회의에서 안건을 제시했을 때 가장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해주셨습니다.

(2) 장윤나 학우님 (3/5점)

장윤나 학우님은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후에는 문제없이 자신이 맡은 부분을 수행해주셨으나, MacOS를 사용하신 점 때문에 다른 조원들과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했고, 이것이 조사 방법의 통일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는 본인의 잘못은 아니지만, 조사 결과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피드백을 주고받았다면 좋을 것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회의 참여도 부분에서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3) 전순표 학우님 (2.5/5점)

전순표 학우님은 많이 바쁘셨는지 분석 내용 제출할 때나, 특방 안건을 확인할 때 대체로 늦게 답을 주셨습니다. 참여도가 아쉬웠고, 또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서론 부분을 맡아주셨는데, 자발적으로 추가 분석을 해주셨으면 조에 큰 보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